

# 8천여명 검사 결과, 기생충 감염률 43.7%로 나타나

보통 기생충 감염률이 20% 이상이면 기생충 감염국가로 분류되는데, 라오스는 43.7% 정도의 감염률을 보였다.

.....

우리는 라오스에 병장고, 현미경 등과 기생충 의약품을 다량 기증했다.

◀26

한국·라오스 기생충 퇴치사업 제 2차 기생충 관리사업단 인원 8명중 6명이 2000년 5월 9일에 라오스로의 출국을 위하여 국제공항 2청사에 도착한 것은 7시 30분 이전이었다. 출국수속을 마치고 타이항공 TG659편에 탑승한 시간은 10시30분. 이후 5시간 10분 여를 날아서 경유지인 방콕공항을 거쳐 오후 6시 20분 비행기편을 라오스행 QV425로 바꾸어 목적지를 향했다.

라오 항공에서 제공하는 기내식은 향취가 났다. 한 여승무원은 우리 시골의 청순한 아가씨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싸마이다'(안녕하세요), '굽짜이'(감사합니다)를 말하는 우리들에게 스튜어디스들은 계속 미소와 눈길을 주었다.

방콕공항을 이륙하여 1시간 20여분 후에 라오 비엔티안의 야경이 나타났는데 상상 외로 밝았다. 수력발전이 풍부하여 충분한 전기 혜택을 누리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도시의 역 같은 느낌이 드는 라오 공항을 뒤로 하고 10여분 이상 아스콘식으로 가볍게 포장된 길을 보안 먼지를 흩날리며 달려서 보건성 앞의 게스트하우스에 여장을 풀었다. 3개조로 팀을 구성하고 고국의 팍소주 한잔으로 피로를 풀고 우리는 잠이 들었다.

이튿날 새벽 4시반에 잠에서 깨었다. 우리의 습관대로 아침 6시 반에 일어난 셈이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아침식사는 8시쯤 했다.

9시쯤 위생국 부국장인 불라이가 숙소에서 찾아 왔고 우리 일행은 1팀의 검사물품을 가지고 숙소의 건너편에 있는 National Institute of Hygiene & Epidemiology(보건원)로 갔다. 그곳에서 Center for Laboratory & Epidemiology(CLE)의 Director인 MD. Sithat INSISIENG·MAY의 방에서 잠시 인사를 나누고 1층에 있는 회의실에 내려가 검사일정 및 검사방법에 대하여 토의를 했다.

이후 WHO에 미리 보내졌던 물품을 찾으러 갔다. 검사는 2층에 있는 2개의 검사실에서 도말작업과 검경으로 시작되었다. 가검물의 분류는 Mr. Lay SISAVAIH과 MD Khampheng CHOMLASAKI 도와 주었으며 오후에는 미생물 검사 팀도 업무를 도왔다.

점심시간에 Mr. Lay와 함께 메콩강이 보이는 식당으로 갔다. Lay는 메콩강 건너편은 태국이라고 설

▼ 구충약품 등 기증식 후 기념촬영



명해졌다.

오 후 에 는 Khampheng과 Khampleuy를 비롯한 현지 관계자들이 도말과 검경작업을 배우고 함께 일을 시작했다. 문안은 최근에 라이, 캄펜과 함께 일본의 오사카에서 미생물교육을 받고 왔다고 했다.

일은 순조롭게 진행 되어 분류 작업은 2천건 이상, 도말작업은 삼백건쯤을 하였는데, 검경팀에서 갑자기 탄성이 흘러 나왔다. 가검물의 60%정도에서 양성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구충(鉤蟲, Hook worm)을 비롯하여 회충, 편충, 조충, 메콩강주변에 있는 간디스토마와 비슷한 O. v 등이 계속하여 발견되었다. 캄펜과 라이, 캄플리는 저녁까지 우리와 함께 검경을 했다.

저녁 식사로 메콩식당에서는 맥주를 가볍게 마셨고 탕수육과 비슷한 음식과 튀김 닭고기가 나왔으며 스파게티는 일품이었다.

저녁 식사후 중앙의대 기생충학교실 홍성중교수와 연세대의대 기생충학교실 용태순교수를 마중나갔다. 두 교수를 숙소로 안내하고 잠시 식당에 다시 갔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걸음을 재촉하여 숙소로 돌아왔고 곧 곤한 잠에 빠져들었다.

3일째. 어제와 같은 아침 식사를 한 후 라오스 현지 파견팀이 모두 모였다. 부산지부 최상철대리는 WHO로 약품 등을 가지러 일찍 출발하였다. 그러나 숙소의 박은 스킨(비)이 무서울 정도로 쏟아지고 있었다. 5분 여 정도 그렇게 비가 내릴 것이라고 카운터의 아가씨가 말은 했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다. 지나가던 오토바이 족들이 숙소의 처마로 물려들었다. 건너편의 보건원에서는 WHO의 직원이 짐을 가져왔으나 비에 젖고 있었다.

이 날 보건원에서 기생충 약품과 장비 등의 기증식을 가졌

다. 우리쪽에서는 임회장님을 비롯 기생충학 교수님들, 그리고 팀전원이 참석하였고 라오스 측에서는 보건성 부국장을 비롯 검사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기증품은 냉장고 3대, 원심분리기 3대, 현미경 12대 등 장비와 의약품 알벤다졸 5만정, 메벤다졸 5만정, 프라지판텔 3만정 등 기생충약품 등이었다. 부듯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어제 검사한 결과에 따라 회충 양성자에게 투약을 하고 가검물을 받는 작업과 도말 작업을 계속했다.

점심은 메콩식당에서 했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전기가 차단된다고 하여 우리는 2시까지 느긋하게 메콩강과 강 건너의 태국을 바라보았다. 저녁 7시에 WHO



▲ 논웨이 초등학교의 빈혈 검사 현장

의 Deodato가 우리를 초대했다.

결과지를 가지고 식당으로 갔다. 그때까지의 기생충 양성률은 48%정도였다. 보건성 차관인 분깡 피치트가 참석하였고 우리는 양성률을 토대로 회의를 하고 나서 고유의 전통음악이 연주되는 그 곳에서 식사를 했다.

4일째의 아침 일찍 사와나킷으로 출발하였다. 아침은 간단히 하고 보리캄베이의 팍산으로 2팀이 가고 1팀은 전날 투약을 통하여 가검물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비엔티안의 Noneway 학교로 출발기로 했다.

5분여 4차선으로 된 고속도로와 2차선으로 된 도로를 100에서 130Km/hour의 속도로 6시간을 달려갔다. 팍산에 들어가기 2Km 전쯤에서 점심 식사를 구운 거북



▲ 임한중 회장이 어린이 요충 검사를 하고 있다.

요리로 하였는데, 거북은 큰 자라였다. 식당의 한구석에 피어있던 봉선화는 반가운 감정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식당에서 우리는 헤어졌다. 그들은 길의 오른쪽으로 가는 팍산으로, 우리는 앞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길은 2차선으로 계속되었고 대체적으로 곧게 뻗어 있었다. 휴게소는 없었고, 도로에 갑자기 나타나는 염소 때, 오리 떼가 차를 머뭇거리게 하였다.

라오의 제 2의 도시인 사와나킷에 도착한 후 먼저 Hospital 사와나킷에 들렀는데 s자가 빠진 것이 특이하였다. 병원은 2층 건물로 국가경제에 비하여 시설이 잘 되어 있었다. 짐을 기생충 검사실로 옮긴 후 우리는 가까운 호텔에 자리를 잡았다.

저녁에는 시내로 나가보았다. 길거리 좌판에서 무언가를 사먹고 있는 예쁜 소녀가 우리에게 미소를 보였다. 좋은 인상으로 기억 속에 남는다.

5월13일은 토요일이었는데 라오 인들은 휴무일 이었다. 3명의 현지 여직원이 줄근을 하여 함께 기생충검사를 시작하였다. 현지어

로 기재된 명단 분류가 서툴러 부지런히 도말을 시작하였지만 검경은 250여건에 불과했다.

5월 14일 비엔티안으로부터 회장님께서 오셨다. 검경은 677건을 했다. 밤 12시에 종료되었다.

총932건. 숙소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쳐들고 결과통계작업을 위해 날을 썼다.

다음날 기생충검사 도말 및 검경을 우리측 4사람과 라오측 6사람이 시작했다. 주변의 메콩 강변에서 잡아온 민물고기를 검사하여 metacercaria를 발견했다. 아마도 O.v일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O.v를 전파시키는 민물고기의 종류를 파악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식사 후 현지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보건원 한사람과 함께 계속 검경을 했다.

다음날 새벽에 회장님은 비엔티안으로 출발하셨고 우리는 검사실에서 전날 못하였던 3,595건 검사를 시작해 5시 이후 완료하였다. 이후 슬라이드 세척 등 일을 마치니 저녁 7시가 넘었다.

양성률을 보이는 십이지장충(Hookworm)이 33.1%, 디스토마

의 일종인 Opisthorchis viverrini가 25.9%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었다. 20%의 감염율을 보이면 고도의 기생충 감염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튿날 사와나킷의 모닝 바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기념촬영 후 비엔티안으로 나섰다. 가는 도중에 거리의 식당에서 파는 야생 쥐 구이를 호기심에 시식하였다. 비엔티안에 도착하여, 통계작업을 계속하였고 저녁에는 대사관 직원들과 량상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함께 하였다. 레스토랑에서는 간혹 아리랑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일정 마지막날인 2000년 5월 18일. 일찍부터 통계작업에 모두 매달렸다. 모두 8,181명을 검사하였고 전체적인 감염율은 43.7%였다. 대체적으로 Hookworm과 Opisthorchis viverrini가 많았고, Bolikhamxay에서는 회충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WHO에서도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놀라움과 감사를 표했다.

예전에 독일의 학자가 300건을 검사하여 통계를 낸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일주일만에 많은 일을 했다고 고마워했다.

WHO측에서 베푸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2시간 정도의 관광 및 쇼핑을 했다.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후 8시에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한 일이라 몸은 지쳐있어도 마음은 매우 가벼웠다. ㉘

(김선웅·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과장)